

보도시점 2026. 9. 23.(수) 17:00 배포 2026. 9. 23.(수) 13:30

경제협력개발기구, 중간 경제전망 발표

- '26·'2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 상향 조정
('26년 2.6→3.7% <+1.1%p>, '27년 1.9→2.6% <+0.7%p>)

경제협력개발기구(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)는 9.23일(수) 10:00(프랑스 파리 기준, 한국시각 17:00) 중간 경제전망*을 발표했다.

* OECD 경제전망은 매년 2회(6월, 12월) 세계경제·회원국·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,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2회(3월, 9월) 세계경제·G20 국가 대상 발표

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지표

(% , %p)		'26년			'27년		
		6월 전망	9월 전망	조정폭	6월 전망	9월 전망	조정폭
성장률	한국	2.6	3.7	+1.1	1.9	2.6	+0.7
	세계	2.8	2.9	+0.1	3.1	3.0	△0.1
	G20	3.0	3.1	+0.1	3.0	3.0	-
CPI	한국	2.6	3.0	+0.4	2.2	2.7	+0.5
	G20	4.0	4.1	+0.1	3.1	3.6	+0.5

【세계경제】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와 각국 정부의 지원 조치 등이 중동전쟁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으며, 다수 국가가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, 회복탄력성(resilient)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(부제: Weathering Successive Shocks). 이와 함께 AI 확산이 세계 투자·생산·무역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하며, '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.9%('26.6월 전망 대비 +0.1%p), '27년 3.0%('26.6월 전망 대비 △0.1%p)로 전망했다.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6월 전망 대비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'26년 4.1%('26.6월 전망 대비 +0.1%p), '27년 3.6%('26.6월 전망 대비 +0.5%p)로 상향 조정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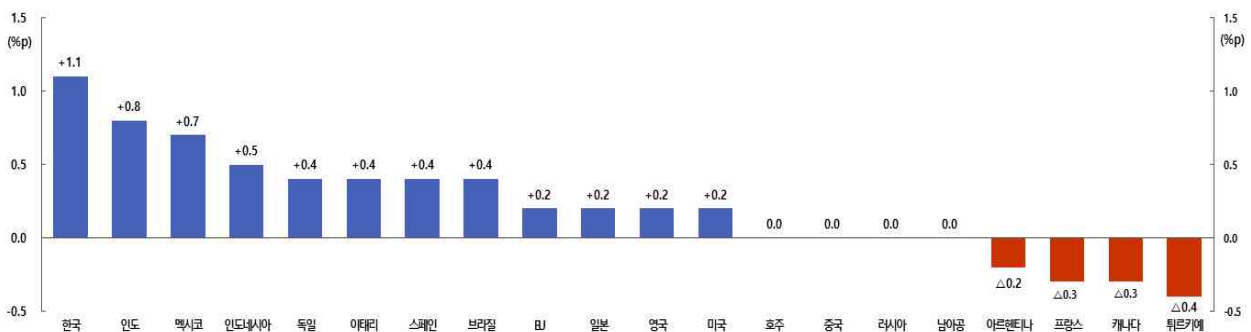
경제협력개발기구는 '26년 4분기 이후 현재의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 에너지 가격 상승세 지속 및 엘니뇨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, 장기 국채금리 추가 상승 등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반면, 중동전쟁 조기 해소 등은 상방 요인으로 예상했다. AI 확산은 투자·생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, 관련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높은 레버리지 의존도 등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.

아울러,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, 선별적(well-targeted)·한시적(phased out)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(Energy Support measures) 등을 권고하며,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공급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(Structural policy reforms) 필요성을 강조했다.

【한국경제】

경제협력개발기구는 '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.7%('26.6월 전망 대비 +1.1%p), '27년 2.6%('26.6월 전망 대비 +0.7%p)로 전망했다. 올해 성장률의 경우 6월 전망에 이어 9월 전망에서도 G20 국가 중 한국의 전망을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(3월 1.7% → 6월 2.6% → 9월 3.7%)했으며, 내년 전망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크게 상향 조정(6월 1.9% → 9월 2.6%)하면서,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를 재확인했다. 특히, 올해는 강한 수출·생산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고,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.

G20 국가 '26년 성장률 전망 조정폭(6월 전망 대비, %p)



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와 내년 모두 G20 평균('26년 4.1%, '27년 3.6%)보다 낮은 '26년 3.0%('26.6월 전망 대비 +0.4%p), '27년 2.7%('26.6월 전망 대비 +0.5%p)로 예상했다. 물가 전망 상향 조정에는 성장률 전망의 큰 폭 상향과 6월 대비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	책임자	과장	임흥기	(044-215-2730)
	경제분석과	담당자	사무관	조선희	whwns56@korea.kr

참고 1

OECD 경제전망(성장률)

(%, %p)	'25년	'26년 전망			'27년 전망		
전망시점		'26.6월 (A)	'26.9월 (B)	조정폭 (B-A)	'26.6월 (A)	'26.9월 (B)	조정폭 (B-A)
전세계	3.4	2.8	2.9	+0.1	3.1	3.0	△0.1
G20	3.3	3.0	3.1	+0.1	3.0	3.0	0.0
호주	2.0	1.9	1.9	0.0	1.8	1.7	△0.1
캐나다	1.9	1.2	0.9	△0.3	1.7	1.3	△0.4
유로존	1.3	0.8	1.0	+0.2	1.2	1.0	△0.2
독일	0.3	0.7	1.1	+0.4	1.1	1.1	0.0
프랑스	0.9	0.7	0.4	△0.3	0.8	0.7	△0.1
이태리	0.5	0.5	0.9	+0.4	0.6	0.6	0.0
스페인	2.8	2.2	2.6	+0.4	1.7	1.8	+0.1
일본	1.2	0.6	0.8	+0.2	0.8	0.7	△0.1
한국	1.1	2.6	3.7	+1.1	1.9	2.6	+0.7
멕시코	0.7	0.8	1.5	+0.7	1.8	1.8	0.0
튀르키예	3.7	3.1	2.7	△0.4	3.8	3.6	△0.2
영국	1.3	0.9	1.1	+0.2	1.1	1.0	△0.1
미국	2.1	2.0	2.2	+0.2	1.8	2.1	+0.3
아르헨티나	4.5	2.8	2.6	△0.2	3.5	3.0	△0.5
브라질	2.3	1.6	2.0	+0.4	2.1	1.9	△0.2
중국	5.0	4.5	4.5	0.0	4.3	4.2	△0.1
인도	7.8	6.3	7.1	+0.8	6.4	6.5	+0.1
인도네시아	5.1	4.7	5.2	+0.5	5.0	5.1	+0.1
러시아	1.0	0.5	0.5	0.0	0.8	0.6	△0.2
사우디	4.6	3.2	-1.8	△5.0	4.3	4.1	△0.2
남아공	1.1	1.2	1.2	0.0	1.6	1.3	△0.3

참고 2

OECD 경제전망(소비자물가)

(%, %p)	'25년	'26년 전망			'27년 전망		
전망시점		'26.6월 (A)	'26.9월 (B)	조정폭 (B-A)	'26.6월 (A)	'26.9월 (B)	조정폭 (B-A)
G20	3.4	4.0	4.1	+0.1	3.1	3.6	+0.5
호주	2.8	4.4	4.5	+0.1	2.6	2.8	+0.2
캐나다	2.1	2.4	2.8	+0.4	2.0	2.5	+0.5
유로존	2.1	2.8	3.0	+0.2	2.4	2.9	+0.5
독일	2.3	2.7	2.9	+0.2	2.8	3.3	+0.5
프랑스	0.9	2.1	2.5	+0.4	1.8	2.1	+0.3
이태리	1.6	3.0	3.0	0.0	2.2	2.6	+0.4
스페인	2.7	3.3	3.7	+0.4	2.9	3.4	+0.5
일본	3.2	1.8	1.8	0.0	2.2	2.6	+0.4
한국	2.1	2.6	3.0	+0.4	2.2	2.7	+0.5
멕시코	3.8	3.9	4.1	+0.2	3.2	3.4	+0.2
튀르키예	34.9	28.4	31.5	+3.1	18.3	24.7	+6.4
영국	3.4	3.7	3.1	△0.6	2.4	2.6	+0.2
미국	2.6	3.7	3.6	△0.1	2.1	2.6	+0.5
아르헨티나	41.9	30.5	30.8	+0.3	15.6	20.5	+4.9
브라질	5.0	4.4	5.1	+0.7	3.6	4.3	+0.7
중국	△0.1	1.5	1.4	△0.1	1.9	1.9	0.0
인도	2.1	4.8	4.7	△0.1	4.0	4.2	+0.2
인도네시아	1.9	3.4	3.3	△0.1	2.5	3.0	+0.5
러시아	8.7	6.5	6.5	0.0	4.6	6.0	+1.4
사우디	2.0	2.0	1.8	△0.2	2.1	2.1	0.0
남아공	3.2	4.2	4.1	△0.1	3.7	3.8	+0.1